

방광요관 역류에 대한 고찰

연세의대 소아과

김 흥 동 · 김 병 길

비뇨기과

최 승 강

방사선과

오 기 근

시행 全例에서 신조직을 얻을 수 있었고, 사구체가 5개 미만이었던 예가 8例(7.5%)였다. 경미한 극소 용 증은 대부분 호소하였지만, 시행 全例에서 신생검 24 시간후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2例(1.9%)에서 육안적 혈뇨가 잠시 있었을 뿐 혈중, 폐혈중, 수혈, 신제거술등의 중증 합병증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조영제나 방사선 조사에 따른 위험이 없고, 신생검 시간이 짧으며, 영유아의 경우도 극소마취만으로도 시행가능하며, 초음파 기계가 널리 보급되어 있으므로, 소아에서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신생검을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리라고 생각된다.

고위험 만삭아의 급성 신부전에 관한 연구

이화의대 소아과

김경호 · 이승주 · 이 근

고위험 만삭아에서 급성 신부전의 발생빈도 및 신장내 신부전과 신전 펌노를 감별하는데 이용되는 신기능 검사의 가치를 알기 위함.

1985년 1월부터 1985년 9월까지 본원 출생 만삭아중 호흡부전, 질식, 쇼크, 태변착색등의 주산기 합병증을 보인 고위험 신생아 55예중 생후 24시간 이내에 배뇨를 못했거나 첫 24시간내의 뇨량이 1 ml/kg/hr 이하의 펌노를 보이던 13례에게 급성 신기능 장애의 의심하에 신기능 검사와 수액치료를 시행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뇨량 감소를 주소로 본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신생아 18명에서 같은 방법의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여 급성 신부전의 빈도를 관찰하였다. 이들 환자에서 시행된 각종 신기능 검사로 신장내 신부전과 신전펌노를 감별키 위한 유의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본원에서 출생한 고위험 신생아 총 55례중 펌노를 보인 신생아는 13례(23.7%)이나 이 중 1례(1.8%)에서 만 신장내 신부전으로 진단되었다. 같은 시기에 펌노를 주소로 의입한 신생아에서는 18례중 5예(27.2%)에서 신장내 신부전으로 진단되었다. 각종 신기능 검사중 Renal Failure Index 와 FENa(Fractional Excretion of Na)가 신장내 신부전과 신전 펌노군 간에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펌노를 가진 신생아의 급성 신부전의 조기발견 및 치료는 신장내 신부전의 빈도를 줄이는 데 유용하다.

방광요관 역류(Vesicoureteral reflux)는 소아의 요로감염증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갖는 질환으로 역류가 진행됨에 따라 신 손상이 진행되어 만성신부전증으로 발전하며, 이의 조기 발견 및 교정은 만성신부전증으로의 진행을 방지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역류의 교정은 그 정도에 따라 내과적 또는 외과적으로 치료하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연자들은 1983년 4월부터 1986년 1월까지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요로감염증으로 진단된 환자 107명에서 남아의 경우 첫번째 뇨노가 있을 때, 여아의 경우 두번째 뇨노가 있을 때 정맥내 신우 조영술(Intavenous pyelography, IVP)을 시행하였고, IVP 상에 이상소견이 있거나, IVP 상에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항생제 치료에 호전이 없이 뇨노가 계속되거나 너무 자주 재발하는 경우 Voiding cystourethrography (VCUG)를 시행하여 방광요관 역류로 진단된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에서 IVP와 VCUG를 바탕으로 International reflux study committee의 방법에 의거하여 방광요관 역류의 Grade를 나누었으며, 이들의 연령 및 성별 분포, 요로감염과의 관계, 임상증상 및 특징과 치료와 예후에 대해 조사하였다.

요로감염증이 있었던 환자 107명중 방광요관 역류가 있었던 환자는 남아가 9명, 여아가 11명으로 총 20명이었다.

이는 전체 요로감염증 환자의 18.7%에 해당하며 남아에서 20.9%, 여아에서 17.2%로 남녀의 차이는 없었으나, 1세이하에서는 남아가 많았고, 1세에서 6세사이에서는 여아가 많았으며 6세이상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없었다.

20명의 방광요관 역류 환자중 양측성이었던 경우가 8명, 일측성이었던 경우가 12명이었다.